


책도 보고 노래도 불러요...

재미있는 동시·동요



《실 끝을 따라가면 뭐가 나오지》
 권영상 동시 | 김은주 그림 | 국민서관 | 80쪽 | 값 7,000원

이야기체의 독특한 동시를 쓰는 권영상 씨의 동시집. 마흔세 편의 동시를 담은 이번 책은 "섬세하면서도 움직임이 강한 시 어들을 읽다 보면 어느새 읽는 이도 그 시의 주인공이 되어 버린다"는 이해인 수녀의 추천사처럼 책을 펼치는 이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고 독자와 책의 경계를 허문다. "아침밥 먹지 않아도 좋아. 늦잠 좀 실컷 자고 싶다. 세수하지 않음 뭐 어때. 학교 좀 늦게 감 뭐 어때"로 시작하는 <늦잠 좀 자고 싶다>의 경우는 어른이나 어린이들이나 무릎을 치며 공감할 만한 시. 콜라주 기법, 크레용 컴퓨터 작업 등 혼합매체로 탄생한 장난스런 그림도 시가 갖는 친근함을 배로 전한다.

《김치를 싫어하는 아이들》

김은영 글 | 김상섭 그림 | 창비 | 128쪽 | 값 6,500원

가평군 설악면 장락분교에서 1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은영 씨의 동시집.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작은 시골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둘러싼 어른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담고 있다. "형이는 엄마도 있는데/왜 울어"라고 말하는 서글픈 아이의 노래부터 고통받는 자연에게 보내는 노래까지 산골마을을 둘러싸고 들려오는 순수한 노랫소리들을 책 속에 고스란히 담았다.

《넉 점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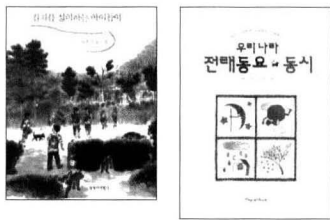
윤석중 글 | 이영경 그림 | 창비 | 30쪽 | 값 8,000원

동요 작사가로 알려진 윤석중 선생의 동시를 담은 책. 시계가 귀했던 시절, 동네 구멍가게로 시간을 물으러 간 아이가 하루 종일 해찰하다 해가 끝까지 집에 돌아온 사연을 담았다. 밤늦게 들어와 "시방 넉 점 반 이래"라고 외치는 꼬마의 모습이 귀엽고 천연덕스럽다. 동시 고유의 리듬감을 잘 살려낸 글과 천진난만하고 엉뚱한 주인공 아이의 표정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그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콩, 너는 죽었다》

김용택 글 | 박건웅 그림 | 실천문화사 | 132쪽 | 값 7,500원

마암분교, 덕치초등학교 등에서 시골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김용택 시인이 그곳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완성했던 동시들을 모았다. 섬진강을 배경으로 길어 올린 70여 편의 동시에는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동심의 영혼이 살아 숨쉰다. 자연과 벗삼는 이만이 들려줄 수 있는 농촌 삶의 즐거움과 철학이 짙은 노래 속에 담겨 있다. 수록된 시 중 4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래동요·동시》

김원석 글 | 이한중 그림 | 파랑새어린이 | 184쪽 | 값 7,500원

전통노래 구전이 단절된 시점에서 옛 전래동요와 동시의 흔적을 찾게 해주는 책. 1974년 월간문학 신인상 '아동문학부문'에 당선돼 등단한 김원석 씨는 동물, 자연 등을 테마로 하는 전래노래 약 80편을 이 책에 모았다. 전래노래 이야기 곁에 저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함께 담았으며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삽화를 보는 재미도 놓칠 수 없다. 노래를 좋아했던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딱지 따먹기》(CD 포함)

시골초등학교아이들 글 | 백창우 작곡 | 강우근 그림 | 한국글쓰기연구회 지도 | 보리 | 100쪽 | 값 8,500원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글쓰기연구회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시골초등학교 아이들의 창작시에 노래를 입혔다. CD에는 전자음으로는 낼 수 없는 소리들, 즉 밥그릇 소리나 종소리, 아이들 목소리가 효과음으로 담겨 있고, 책에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본 세상의 모습이 담긴 글부터 아이들 심리를 엿볼 수 있는 글까지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글들이 묶여 있다.

《시 읽는 아이》(전5권)

정지용 외 지음 | 최승호 엮음 | 정경심 외 그림 | 비룡소 | 각권 40쪽 내외 | 각권 값 8,000원

정지용, 황순원, 박용래 등 우리나라 시인을 비롯해 세계 시인들의 다양한 시들을 그림과 함께 보여주는 시집 시리즈. 그 중에서도 우리말의 맛과 향이 잘 우러나는 정지용의 《해바라기씨》 편이 가장 눈에 띄며 이 밖에도 감칠맛 나는 산문시, 운율감이 느껴지는 정형시 등 다양한 형식의 시를 담은 시리즈들이 언어적 감각과 문학적 감수성을 동시에 키워준다. 시에 걸맞게 그려진 젊은 작가들의 삽화도 볼 만하다.